

0122 Morning scrum

이화중

첫 날에 너무 힘들었다. 마라톤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스퍼트를 올린것 같았다. 어제 집에가면서 오늘 일이 너무 잘풀렸다 생각했다. 특히 의견충돌이 너무 없었다. 생각해보니 팀원이 각자 주장이 안췄것 같았다. 좋았다. 첫날에 잘 풀려서 긴장이 많이 풀리긴했지만,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. 긴장감 풀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.

이승우

어제 살짝 긴장이 됐었는데, 어제보다 긴장이 덜된다. 그래서 상태는 더 좋은 것 같다. 지하철타면서 기분이 안좋았지만 내리고 나서 괜찮아졌다.

원중성

어제 저녁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 바람에 잠을 설쳐서 오늘 살짝 피곤하다. 하지만 열이 내려서 괜찮다. ㉸ 약은 먹은 상태라 머리가 멍하지만 괜찮아 질 것이다.